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s and the corruption perceptions

윤 광 재 (YUN, Kwang-Jai)*

ABSTRACT

These days,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s can't be defined in a single way. But many evaluation institutions define it as a high position in the field of economy and industry. The measurement index of competitiveness of nations usually includes some index about the corruption perceptions. There may be a correlation between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s and the corruption perceptions. The evaluation institutions investigate the degree of corruption perceptions in public institutions.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surveys the bribery and corruptions situations. The World Economic Forum surveys the irregular payments in exports and imports, in public utilities, in tax collection etc..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researches the bribery and corruption.

As a result, a country in the high level of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s tends to have a higher corruption perceptions. But a country in the low level of perceptions, it probably has a lower competitiveness.

Key words: correlation, competitiveness of nations, corruption perceptions

* 한국행정연구원

I. 서론

현재까지 국가경쟁력(Competitiveness of Nations)에 대한 통일된 개념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치·행정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대표적인 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은 국가경쟁력에 대한 개념을 “국가가 기업의 더 많은 가치창출과 국민의 더 많은 번영을 유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높은 수준의 일인당 GDP 성장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중·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지해주는 제도와 경제정책의 셋트를 의미한다.”로 국가경쟁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자원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산업정책연구원(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IPS)은 국가경쟁력에 대해 “한 국가의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종합적인 능력이다.”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가기관의 다양한 국가경쟁력 개념외에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와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원은 국가경쟁력의 평가요인으로 경제성과, 정부효율, 기업효율, 인프라구조의 4개영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기술, 공공기관, 거시경제환경의 3개영역을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요인으로 하고 있다. 산업정책연구원은 국가경쟁력 평가요인을 생산요소조건, 인프라 등 지원사업, 경영여건, 시장수요조건, 근로자, 정치가 및 행정관료, 기업가, 전문가의 8개영역으로 하고 있다.

위의 평가기관들은 국가경쟁력을 측정함에 있어 각국의 부패수준을 측정하여 이 결과를 국가경쟁력 순위에 반영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원은 정부효율영역의 제도적 틀내에서 ‘뇌물과 부패의 인식정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공공기관영역내에서 공공기관부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각국의 부패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산업정책연구원은 정치가 및 행정관료영역에서 ‘뇌물과 부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각 평가기관은 국가경쟁력 측정지표 중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뇌물과 부패와의 인식정도’를 파악하여 각국의 부패정도를 국가경쟁력에 포함하고 있다. 아직 국가

경쟁력 측정지표 중에서 부패관련 항목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과의 상관관계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높을수록 부패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 국가에 있어 부패인식도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 수준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패인식 수준이 높은 국가는 선진국 부패인식 수준이 낮은 국가는 후진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의 국가경쟁력 측정지표와 측정지표하의 부패지표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과의 상관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II.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측정지표

1. 국가경쟁력 개념과 제고의 필요성

1) 국가경쟁력 개념의 다양성

국가경쟁력, 산업경쟁력 그리고 기업경쟁력 등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지만 막상 경쟁력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선뜻 답하는 사람이 없다. 대체로 기업경쟁력은 시장에서 상대기업과 경쟁하여 살아남거나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국가나 산업의 경우에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국가경쟁력(Competitiveness of Nations) 개념이나 구성요소와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실제로 평가기관마다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제고의 목표는 ‘자국민의 소득을 증가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동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대부분 일치되고 있다.

IMD는 2004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국가경쟁력의 개념을 ‘국가가 기업의 더 많은 가치창출과 국민의 더 많은 번영을 유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출하는 능력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1) “A Field of Economic Knowledge, which analyses the facts and policies that shape the

있다. 반면에 WEF는 국가경쟁력의 개념을 ‘높은 수준의 일인당 GDP 성장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의 능력²⁾’이라고 정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지해주는 제도와 경제정책의 셋트라고 하고 있다. 산업정책연구원은 국가경쟁력을 “한 국가의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종합적인 능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밖에 국제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장기간에 걸쳐 자국민의 실질소득을 유지하고 확대해가는 수준³⁾’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 1> 주요 평가기관의 국가경쟁력 개념규정

기관 및 출처	국가경쟁력 개념	특성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국가가 기업의 더 많은 가치창출과 국민의 더 많은 번영을 유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출하는 능력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능력 중시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4)	-높은 수준의 일인당 GDP 성장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중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지해주는 제도와 경제정책의 셋트를 의미	제도와 정책에 대한 survey data 중시
IPS	-한 국가의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종합적인 능력	산업의 경쟁력을 중시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조건하에서 한 국가가 세계시장의 요구에 맞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 가능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자국민의 실질소득을 유지하고 확대해가는 수준	장기적 관점의 국가경쟁력 개념
EU (Competitiveness Advisory Group 1999)	-경쟁력은 생산성, 효율성, 수익성의 요소를 의미하며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강력한 수단	국가차원의 생산성 향상을 의미

ability of nation to create and maintain an environment that sustains more value creation for its enterprises and more prosperity for its people’.

- 2) “The ability of a country to achieve sustained high rates of growth in GDP per capita”.
- 3) “Competitiveness is the degree to which a nation can, under free trade and fair market conditions produce goods and services which meet the test of international markets, while simultaneously maintaining and expanding the real incomes of its people over the long-term.”

U.S.A. (U.S. Competitiveness 2001)	-세계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고부가가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모든 미국인들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국가의 능력	국가innovative capacity 확대에 주력
U.K. (Competitiveness White Paper 2000)	-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자극하는 능력(Capability), 기업이 경쟁우위를 갖도록 하는 협력(Collaboration), 경쟁촉진(Competition) 등	지식기반경제 하에 새로운 정부역할에 대한 강조
일본경제 연구센터	-잠재경쟁은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니고, 장래의 경쟁력으로서, 어느 국가가 향후 경쟁력을 키워갈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의미	hard data만을 사용한 경쟁력평가

자료: IMD, 2004: 75-76, 이연오외, 2002: 5; [http://www.ips.or.kr /download/031216_2003NCR_report.pdf](http://www.ips.or.kr/download/031216_2003NCR_report.pdf)를 참고하여 재구성

국가경쟁력이란 단순히 국가간의 경쟁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한 국가가 경제적인 면에서 발휘할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은 경쟁력의 창출요인에서부터 경제구조가 형성되고 이것들이 다시 경제성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종원·김영세, 2000: 173).

2)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재정위기를 전후로 뒤늦게 국가의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다. 즉, 국가가 부도상태에 처한 쓰라린 경험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체평가가 절실하여진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의 Porter교수는 단계별 국가경쟁력 발전과정을 설명하면서 “국가가 필연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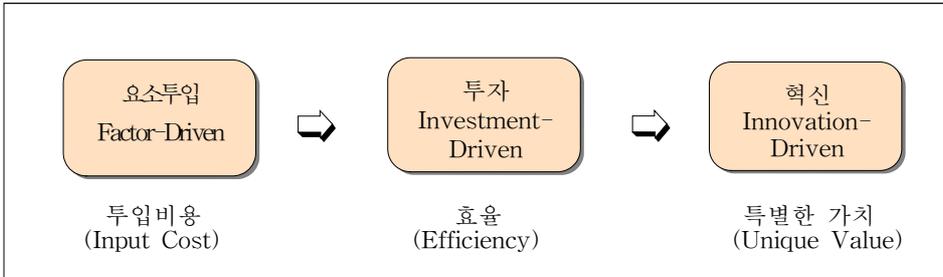
Porter교수가 말하는 경제발전단계는 크게 요소투입단계(Factor-Driven), 투자단계(Investment-Driven), 혁신단계(Innovation-Driven)의 3단계로 진행된다(Porter, 2003: 28-29).

요소투입단계에서는 요소투입을 증가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단계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단계로부터 경제성장을 시작한다. 투자단계에서는 국가나 기업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에 의하여 구분되는 단계로 외국의 기술을 흡수하는 능력이 발휘되는가가 요소투입 중시단계와의 차이점이다. 혁신단계는 기업이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창조하는 단계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은 줄어들고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인 혁신노력들이 전개되는 단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혁신단계에 진입해 있지만,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이 국가경쟁력의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지만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매우 분분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각 부분마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 포터의 경제발전 단계



자료: Porter, 2003: 28-29

2. 국가경쟁력 측정지표의 구성요소

1) 국가경쟁력 측정기관의 선정

세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매년 평가하여 발표하는 종합기관으로 IMD와 WEF 등이 있다. IMD는 1989년 이후 매년 세계경쟁력 보고서(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WCY)를 통해 각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WEF는 1996년 이후 글로벌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GCR)를 통해 각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위의 두 기관은 2004년에 각각 60개국과 104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하였고 우리나라는 각각 35위, 29위⁴⁾를 기록하였다.

한편, 2000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연구원은 IPS 국가경쟁력보고서(IPS National Competitiveness Report)를 통해 세계 각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2005년,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66개국 중 22위를 차지하였다(http://www.ips.or.kr/download/050510_NCR_2005.pdf).

4) IMD 평가의 특징은 인구 2,000만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서도 평가했는데 2,000만 이상 국가 30개국 중에 우리나라는 15위를 차지하였다.

2)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지표

IMD는 2004년도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서 4개 분야 총 323개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각국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표 2> IMD 국가경쟁력 평가요인(2004년 기준)

단위: 개(총수)

평가분야	평가내용	평가항목	
경제성과 (Economic Performance)	-국내경제(Domestic Economy)	33	83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	20	
	-국제투자(International Investment)	17	
	-고용(Employment)	9	
	-가격(Prices)	4	
정부효율 (Government Efficiency)	-국가재정(Public Finance)	11	77
	-재무정책(Fiscal Policy)	14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	17	
	-기업규제(Business Legislation)	22	
	-사회제도(Societal Framework)	13	
기업효율 (Business Efficiency)	-생산성(Productivity)	11	69
	-노동시장(Labor Market)	20	
	-금융(Finance)	22	
	-기업경영(Management Practices)	10	
	-태도와 가치(Attitudes and Values)	6	
인프라구조 (Infrastructure)	-기초(Basic Infrastructure)	24	94
	-기술(Technological Infrastructure)	18	
	-과학(Scientific Infrastructure)	22	
	-보건과 환경(Health and Environment)	17	
	-교육(Education)	13	

자료: IMD, 2004: 30-39.

여기에는 경제성과(83개), 정부효율(77개), 기업효율(69개), 인프라(94개) 등이 있다. 경제성과분야에서는 국내의 거시경제를 평가하고 있고, 정부효율 분야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행되는 정부정책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기업효율분야에서는 기업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이윤을 창출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는지를 평가

한다. 마지막으로 인프라분야에서는 기초, 기술, 과학, 인적자원 등이 얼마나 산업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4개의 분야는 각각 5개의 하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총 20개의 구성요소). 이와 같은 5개의 구성요소는 각기 다른 수의 평가항목을 포함하지만 결과를 통합함에 있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즉, 구성요소 한 개씩 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 $20 \times 5\% = 100\%$).

3)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지표

WEF는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4-2005에서 성장경쟁력 지수(Growth Competitiveness Indexes)⁵⁾를 기술(technology),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s), 거시경제환경(macroeconomic environment) 등의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성장경쟁력 지수의 특징은 경제발전이 본궤도에 오르고 앞으로의 발전이 국내에서 개발하는 기술에 달려있는 국가를 핵심국가(core innovators)로 분류하고, 아직 경제발전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외부에서 기술을 빌려오는 국가를 비핵심국가(non-core innovators)로 분류하여 각각 3가지 분야의 가중치를 다르게 산정하였다. 다시 말해, 2003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명당 미국특허청에 15개 이상의 특허권을 획득한 국가를 핵심국가로, 나머지를 비핵심국가로 분류하였다(WEF, 2004, 17-18). 우리나라는 현재 핵심국가에 속해 있다.

<표 3> WEF 국가경쟁력 지수구성 및 가중치배분(2004~2005년 기준)

구분	기술 (technology)	공공기관 (public institutions)	거시경제환경 (macroeconomic environment)
핵심그룹에 대한 가중치	1/2	1/4	1/4
비핵심그룹에 대한 가중치	1/3	1/3	1/3
하위지수 및 가중치	-핵심그룹: 혁신 1/2 + ICT 1/2 -비핵심그룹: 혁신 1/8 + 기술이전 3/8 + ICT 1/2	계약·법 1/2 + 부패 1/2	경제안정성 1/2 + 국가신용등급 1/4 + 정부지출 1/4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정보통신기술을 말함.

5) WEF는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4-2005에서 국가경쟁력 지수를 성장경쟁력 지수(Growth Competitiveness Index)와 미시경제경쟁력 지수(Microeconomic Competitiveness Index)의 2가지 지수로 발표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성장경쟁력 지수를 국가경쟁력 지수로 보고 있다.

기술분야에서는 국가의 기술혁신과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고, 공공기관분야에서는 국가제도의 계약과 법 그리고 부패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거시경제환경분야에서는 경제안정성과 국가신용등급, 정부지출 등을 중심으로 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표 4> WEF 국가경쟁력지수 평가요인(2002~2003년 기준)

단위: 개(총수)

평가분야	평가내용	항목	
기술 (technology)	-클러스터개발(Cluster Development)	10	75
	-기술혁신과 확산(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iffusion)	18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11	
	-환경정책(Environment Policy)	14	
	-국제기관(International institution)	6	
	-일반인프라(General Infrastructure)	16	
공공기관 (public institutions)	-공공기관계약 및 법률(Public Institutions Contracts and Law)	22	37
	-공공기관부패(Public Institutions Corruption)	15	
거시경제 환경 (macro-economic environment)	-총국가경제성과지표(Aggregate Country Performance Indicators)	9	76
	-거시경제환경(Macroeconomic Environment)	35	
	-국내경쟁(Domestic Competition)	11	
	-기업활동과 전략(Company Operation & Strategy)	21	

자료: WEF, 2005: 545-549.

전체 국가경쟁력 지수 중에서 공공기관분야 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핵심국가는 약 12.5%로 나타났고 비핵심국가의 경우는 16.5%로 나타났다.

4) 산업정책연구원(IPS)의 국가경쟁력 지표

IPS의 2003년도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물적 요소 4개, 인적 요소 4개, 총 8개의 대분류(9-Factor모델, 기회요인 제외)를 각 Factor 당 25~30개의 소분류 변수(variables)로 평가하고 있고 그 총합은 272개 소분류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물적

요소에는 생산요소 조건, 경영여건, 관련 및 지원산업, 시장수요조건 등이 있고, 인적 요소에는 근로자, 정치가와 행정관료, 기업가, 전문가 등이 있다. 산정방식은 물적 요소 50%, 인적요소 50%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값을 평균하여 합산한다.

<표 5> IPS 국가경쟁력지수 평가요인(2003년 기준)

단위: 개(총수)

평가분야		평가내용	평가항목	
물적 요소	생산요소조건 (Factor Conditions)	-에너지자원(Energy Resources) -기타자원(Other Resources)	6 17	23
	인프라등 지원산업 (Related & Supporting Industries)	-물류(Transportation) -통신(Communication) -금융(Finance) -교육(Education) -과학·기술(Science & Technology) -생활환경(Overall Living Environment)	10 11 23 10 9 16	79
	경영여건 (Business Context)	-전략과 구조(Strategy & Structure) -글로벌마인드(Global Mindset) -기업문화(Business Culture) -외국투자(Foreign Investment)	5 5 7 29	46
	시장수요조건 (Demand Conditions)	-시장의 크기(Demand Size) -시장의 질(Demand Quality)	22 8	30
	근로자 (Workers)	-양적규모(Quantity of Labor force) -질적경쟁력(Quality of Labor force)	10 6	16
인적 요소	정치가 및 행정관료 (Politicians & Bureaucrats)	-정치가(Politicians) -행정관료(Bureaucrats)	11 39	50
	기업가 (Entrepreneur)	-개인역량(Personal Competence) -사회기반(Social Context)	6 5	11
	전문가 (Professionals)	-개인역량(Personal Competence) -사회기반(Social Context)	7 6	13

※ 평가항목중 기회요소(2), 보충데이터(2) 별도

자료: IPS, 2003: 606-610.

III. 국가경쟁력 측정지표하의 부패측정지표

1.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부패측정지표

부패관련 지수는 정부효율분야 중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의 전체 17개 항목 중에 한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뇌물과 부패'(Bribing and corruption)의 인식정도를 국내·외 기업의 최고 또는 중간관리자 4,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표 6> IMD의 부패인식도 설문조사 내용

구분	대상	내용
내용	-국내·외 기업의 최고 또는 중간관리자 (Executives in top and middle managem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anies)	-경제에 있어서 뇌물과 부패의 존재 (existence of bribery and corruption in economy)

자료: <http://www.transparency.org/cpi/2004/cpi2004.sources.en.htm>.

한편,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추이를 살펴보면 2000~2002년까지 28~29위를 유지하다 2003년에 37위로 하락했고 2004년 2계단 상승하여 35위를 기록하였다.

<표 7> IMD의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추이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순위	28	29	29	37	35
전체	47	49	49	59	60

자료: IMD, 2004: 306.

2. 세계경제포럼(WEF)의 부패측정지표

부패지수의 측정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내·외 회사들의 최고경

영자 8,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공공기관분야의 부패를 측정하는 구성요소⁶⁾는 15개이다.

<표 8> 공공기관부패의 설문문항 구성요소

번호	구성요소
1	-수출·입시 불법적인 지불(Irregular payments in exports & imports)
2	-공익사업에서 불법적인 지불(Irregular payments in public utilities)
3	-조세징수시 불법적인 지불(Irregular payments in tax collection)
4	-공공계약시 불법적인 지불(Irregular payments in public contracts)
5	-대출신청시 불법적인 지불(Irregular payments in loan applications)
6	-정부 정책입안시 불법적인 지불(Irregular payments in government policymaking)
7	-사법적 판결시 불법적인 지불(Irregular payments in judicial decisions)
8	-지불 또는 뇌물의 빈도(Frequency of payments or bribes)
9	-지불 또는 뇌물의 신뢰성(Reliability of payments or bribes)
10	-공공기금의 유용(Diversion of public funds)
11	-부패에 대한 경제적 비용(Business costs of corruption)
12	-정치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Public trust of politicians)
13	-불법정치기부금에 대한 풍조(Prevalence of illegal political donations)
14	-합법적인 정치기부금의 정책결과(Policy consequences of legal political donations)
15	-합법적인 정치기부금의 오용(Misuse of legal political donations)

자료: WEF, 2004: 548.

한편, WEF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살펴보면 2000년 29위를 하였고 2003년 18위까지 매년 조금씩 상승하다가 2004년 29위를 기록하였다. 2004년에 이처럼 순위가 급락한 것은 거시경제환경의 악화와 공공기관과 부패문제에서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공공기관의 부패에 대한 설문문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How commonly are bribes paid in connection with import and export permits? 2. How commonly are bribes paid when getting connected with public utilities?, 3. How commonly are bribes paid in connection with annual tax payments?..... 등이다.

<표 9> WEF의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추이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순위	29	23	21	18	29
전체	58	75	80	102	104

자료: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0-2004.

3. 산업정책연구원(IPS)의 국가경쟁력지표

부패지수는 인적 자원요소 중 정치인 및 행정관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치가에 대한 11개 항목 중에 한 항목으로 ‘뇌물과 부패’(Bribery and corruption)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관료 37개 항목 중에 한 개의 항목으로 ‘뇌물과 부패’(Bribery and corruption)를 설문하고 있다.

<표 10> IPS의 부패인식도 설문조사 내용(2003년 기준)

구분	대상	내용
내용	-전 세계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 학자, 기업가, 애널리스트 등	-68개 평가국가에 대하여 “뇌물과 부패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질문을 하여 1~10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순위를 산정(10점 척도)

한편, ISP에서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살펴보면 2001년 22위, 2002년 24위, 2003년-2004년 25위, 2005년 22위로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하락 폭이 IMD나 WEF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다.

<표 11> IPS의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추이

연도	2001	2002	2003-2004	2005
순위	22	24	25	22
대상	68	68	68	66

자료: http://www.ips.or.kr/download/031216_2003NCR_report.pdf.

4.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도 지수의 내용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부패인식도 지수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 속에서 존재하는 부패가 어느 정도 인식되는가를 중점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지수이다. 부패인식도 지수는 지역과 국외의 현지 거주자들을 포함하여 기업인과 학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수행된 12개 독립 연구기관들의 18개 설문을 근거로 지수를 종합산출하고 있다. 그리고 점수는 10(가장 깨끗)~0(가장 부패) 사이로 부여하고 있다. 1995년 4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2004년에는 조사대상국이 146개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부패인식도 지수는 공공분야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패를 '사적 이득을 위한 공직의 악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패인식도 지수에 인용된 설문조사들은 대체로 사적 이득을 위한 공권력의 오용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공공조달분야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적용되는 기관의 데이터수는 각기 다른데,⁷⁾ 아래 <표>는 12개 기관의 18개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표 12> 2004년도의 부패인식도 지수 측정데이터

기관 또는 기구	측정 연도	측정대상	질문내용	응답 자수	대상 국가
BEEPS (World Bank and the EBRD)	2002	최고경영자	-불법적인 부수비용의 빈도: 기업 경영에 있어 부패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	6,500	25
CU (Columbia University)	2003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정책분석가, 학자, 언론인	-국가내 부패의 심각성	224	95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4	전문가집단	-사적이득을 위한 공직의 악용	적용할 수없음	142
FH (Freedom House)	2004	미국내 전문가	-정부에서 행해진 부패의 정도(대중의 인식, 매체의 보도, 반부패활동정도)	적용할 수없음	28 (지역 포함)
II (Information International)	2003	바레인, 레바논, UAE의 최고경영자	-뇌물의 빈도, 비즈니스시 비용, 주변국과 계약시 리베이트정도	382	31

7) 12개 기관의 18개 설문조사를 가지고 각 국가별 부패지수를 산정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어떤 국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설문데이터가 적용되거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우리나라의 경우 14개의 데이터로 지수를 산정한 반면에 바바도스(Barbados, 21위)와 말타(Malta, 25위)는 각각 3, 4개의 데이터로 지수가 산정되었다.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2	국내·외 기업의 중간, 최고 관리자	-경제에 있어 뇌물과 부패의 실재	3,532	49
	2003			4,000	51
	2004			4,166	51
MDB (A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2002	은행내의 전문가	-부패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발생하는가?	398	47
MIG (Merchant International Group)	2004	지역특파원과 전문가	-정부관료의 뇌물과 부패	적용할 수없음	155
PERC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2002	아시아에 있는 외국기업인	-본국뿐만 아니라 지금 근무하는 나라에서 부패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1,000명 이상	14
	2003				
	2004				
TI/GI (Gallup International on behalf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2	15개 신흥경제국가로부터의 최고경영진	-정치인, 정부관료(법관포함)들에게 뇌물을 주는 정도, 그리고 그런 비용이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정도	835	21
WMRC (World Markets Research Centre)	2004	전문가집단	-정치, 관료부패의 정도	적용할 수없음	186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2	국내·외 회사의 기업 최고리더	-다양한 정부기능들과 연관된 비자금	4,600	76
	2003			7,741	102
	2004			8,700	104

자료: <http://www.transparency.org/cpi/2004/cpi2004.sources.en.html>.

5) 우리나라의 부패인식도 지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도 지수는 1998년 이후 40위에서 50위 사이를 맴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순위는 OECD에 가입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제비교에 있어서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3위권이나, 부패인식도 지수는 50위로 일반적으로 부패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수준에 비해 부패인식도 지수가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구매력평가기준(ppp) 1인당 GDP \$15,000에 상응하는 부패인식도 지수는 25위 수준이다(홍현선, 2003: 169-170).

<표 13> 국제투명성기구(TI)의 우리나라 부패인식도 지수 순위추이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부패지수	4.29점	4.2점	3.8점	4.0점	4.2점	4.5점	4.3점	4.5점
국별순위	34위	43위	50위	48위	42위	40위	50위	47위
조사대상 국가수	52개	85개	99개	90개	91개	102개	133개	146개

자료: <http://www.transparency.org/surveys/index.html#dpi>.

IV.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도와의 상관관계

실제로 국가경쟁력의 순위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도 지수와의 비교는 경제, 사회, 기술의 청렴은 보다 깨끗한 정부인식과 연동되어 있음을 암시한다(반부패국민연대, 2001: 357).

각 기관별 평가순위를 비교해본 결과 미국이 IMD, IPS 평가에서 1위, WEF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서 부패인식도 지수는 17위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국가경쟁력에 비해 부패인식도 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경쟁력 지수 순위와 부패인식도 지수순위가 상위권이면서 어느 정도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WEF의 순위가 9위로 가장 높았고, IPS 19위, IMD 23위를 각각 기록하였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도 지수순위는 24위를 기록하여 국가경쟁력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고 있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전반적으로 순위가 높았다. 싱가포르의 경우 IMD, WEF, IPS 순위가 각각 2위, 7위, 11로 나타났고, 국제투명성기구 순위도 5위를 기록하여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도 지수 순위가 최상위권이면서 가장 비례한 국가로 꼽혔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IMD, WEF, IPS 순위가 35위, 29위, 22위로 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보다 다소 뒤쳐졌고, 부패인식도 지수 역시 47위를 기록하여 국가경쟁력이 비슷한 칠레보다도 상대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도 지수순위가 낮았다.

<표 14> 각 측정기관의 평가순위(200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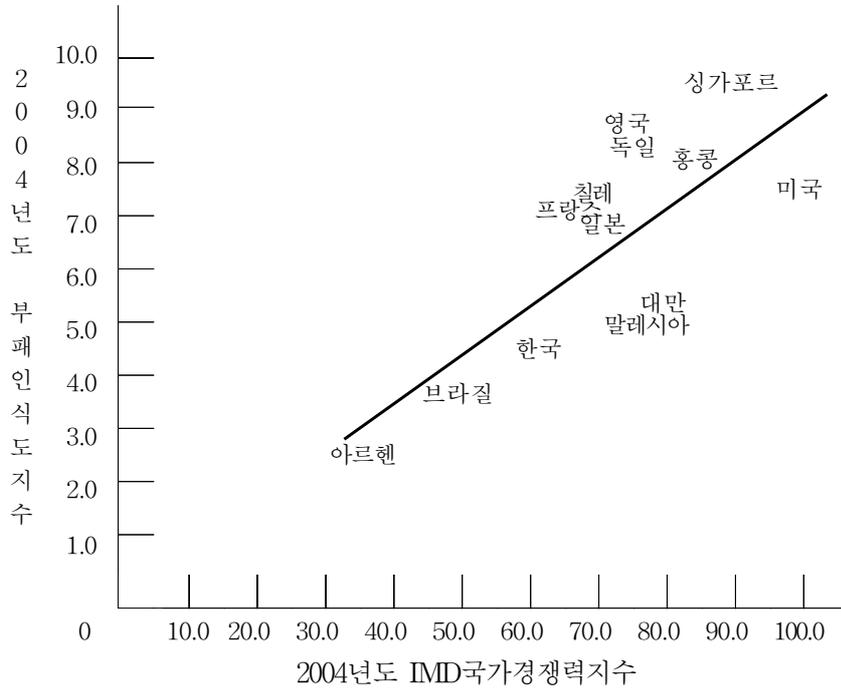
국가	IMD	WEF	IPS	TI
미국	1	2	1	17
영국	22	11	8	11
프랑스	30	27	9	22
독일	21	13	17	15
일본	23	9	19	24
한국	35	29	22	47
홍콩	6	21	10	16
싱가포르	2	7	11	5
대만	12	4	18	35
말레이시아	16	31	32	39
인도네시아	-	69	45	133
브라질	53	57	37	59
아르헨티나	59	74	61	108
칠레	26	22	23	20

※ IPS는 2005년도 기준

결론적으로 위의 <표 14>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국가경쟁력 지수와 부패인식도 지수는 비례형태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국가경쟁력이 높으면 부패인식도 수준도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이는 공공부문의 부패인식 지수가 낮으면 그 만큼 국가경쟁력도 낮다는 것이다.

글로벌차원에서도 신흥 개발도상국가인 칠레, 이스라엘, 헝가리와 말레이시아와 같은 글로벌 국가들은 그들의 덜 글로벌화된 인접국가들에 비해 적은 부패를 보여주고 있다(반부패국민연대, 2001: 357).

<그림 2> IMD국가경쟁력지수와 부패인식도지수의 상관관계



V. 결론

일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모든 분야에서의 경쟁이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의 각 분야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각 국가가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들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내·외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은 각국의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요소와 함께 다양한 측정지표 등을 사용하고 있다. 각 평가기관의 결과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연계성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기관들은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경제·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각국의 공공부문의

경쟁력까지도 측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효율성과 더불어 부패수준을 측정하여 이를 국가경쟁력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높은 국가는 경제·산업분야에서 높은 경제성과, 높은 정부 및 기업효율성, 안정적인 인프라 구조 등을 갖추고 있다. 반면에 국가경쟁력이 낮은 국가들은 낮은 기술력과 미약한 거시경제환경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이 높은 국가는 부패인식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이 낮은 국가는 부패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높은 국가는 부패의 수준이 낮은 반면 부패수준이 높은 국가는 국가경쟁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국가경쟁력 측정지표에 부패관련 지표의 비중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측정 지표하에 부패관련 지표의 비중이 높아갈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사회전반의 부패수준을 낮추고 부패인식도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노력들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반부패국민연대(2001), 「반부패지도 I」, 사람생각.
- 반부패국민연대(2004), 반부패국민연대 2003 활동백서, 반부패국민연대.
- 산업연구원(2004), E-Kiet 산업경제정보, 산업연구원.
- 이언오 외(2002), “한국의 국가경쟁력: 현실과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2-4, 삼성경제연구소.
- 이종원·김영세(2000), 「부패의 경제」, 도서출판 해남.
- 산업정책연구원(2003), 2003 IPS 국가경쟁력 랭킹발표, 산업정책연구원.
- 홍현선(2003), “부패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2003 반부패활동백서, 반부패국민연대.
- International Management for Development(2004),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 Porter. M.E(2003), “Building the Microeconomic Foundations of Prosperity: Findings from the Microeconomic competitiveness Index”, In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1-200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2003), National Competitiveness Report 2003-2004.

World Economic Forum(2005),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4-200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http://www.ips.or.kr/download/031216_2003NCR_report.pdf.

http://www.ips.or.kr/download/050510_NCR_2005.pdf(ips 2005년 순위)

<http://www.transparency.org/cpi/2004/cpi2004.sources.en.html>.

<http://www.transparency.org/surveys/index.html#cpi>.(전체순위)

저자약력 : 윤광재는 프랑스 파리제2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I)에서 Ph.D를 취득하였고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부패문제를 비롯하여 비교행정, 재무행정, 지방자치 등이다.